**한 형 석** 회장
(사)한국계육협회

12년 만에 돌아온 닭의 해 을유년 한해를 보내면서 닭고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신 본회 회원사를 비롯해 전국의 육계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정월 초 육계 관련인들이 서울 남산공원에서 닭의 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와 보다 나은 닭고기 산업의 미래를 약속하며 힘찬 다짐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AI 발생으로 인해 생산기반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위기를 극복하고 맞이한 닭의 해이었기에 그 감동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닭고기 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나타난 사례만으로 과대보도되어 국내 닭고기 소비가 급감, 우리 닭고기 산업자체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올 한해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닭고기 산업인들을 포함, 가금관련 기관 · 단체 대표자들이 'AI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대응방안으로 용어의 정리에서부터 소비자에게 국내산 닭고기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언론사 및 방송사를 방문, 보도자제를 협조 요청하는 등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AI의 망령

이 언제, 어떤 형태로 되살아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AI가 발생되는 순간 우리의 닭고기 산업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업계차원에서도 대 소비자에 대한 AI의 안전성 홍보를 통한 인식전환을 위해 재원마련에 나서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I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의 뇌리에 확실하게 자리잡지 않는 한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어려움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속적인 안전성 홍보만이 우리의 계육산업이 무한경쟁시대에 훌륭한 먹거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방어적인 수동적 행태에서 벗어나 우리 닭고기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시키는 것도 우리가 AI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완벽에 가깝도록 AI를 성공적으로 종식시켰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이를 지켜나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크나큰 노고이며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회원사를 비롯해 육계 관련인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AI가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발생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육계의무자조금사업이 대의원 선거를 마치고 올해 안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 준비절차를 밟고 있으며, 시행시기를 내년 초기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계자조금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해결의 일정부문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조금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을유년 잘 마감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